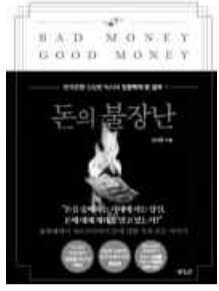


돌화폐부터 비트코인까지...돈의 본질과 실체

돈의 불안

신상준 지음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 폐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동 참사나 최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결국 이윤에 집착한 나머지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탓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돈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

건설 현장 사고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얽히고설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자리한다. 달리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물질만능이 초래한 결과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돈은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돈은 인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링컨이 1865년 암살되기 불과 몇 주 전 상원을 방문한 해 말이다.

링컨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돈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돈의 실체는 무엇일까? 돈이 무엇이고 세상이 지배하는 무기가 되었을까?

돌화폐에서 비트코인까지 돈에 관련된 책이 출간됐다. 한국은행 금융전문가 신상준 박사가 펴낸 '돈의 불안'은 인문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돈 이야기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돈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리고 부자가 될 권리'는 책 제목과 불온한 조화를 이룬다. 저자는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며 화폐,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책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상징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다. 강의하듯 설명하는 방식과 아울러 돈을 통해 흐르는 경제 문제까지 짚어준다.

16세기 발견 당시 남태평양 '야프'라는 섬에는 원시적 문명을 지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당시 이들은 돌화폐를 사용했는데,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었다. 가운

데 뚫려 있는 구멍은 막대기를 넣어 운반하기 위한 용도였다. 돌화폐는 섬에서 약 600km 떨어진 섬에서 발견되는 석회석이 재료였다.

야프섬 원주민들은 애덤 스미스나 카를 마르크스를 모르지만 노동가치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경제학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경제학'은 이처럼 야프섬의 돌화폐로부터 시작되는 게 특징이다.

화폐제도의 근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저자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약탈의 결과에서 비롯됐다.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신대륙에서 약탈해간 금과 은이 세계 경제를 움직였다. 고대 시대에는 돈이 주로 군사적 도구였으며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지배하는 질서의 요소였다면 이 시대에는 돈이 "스스로 균형을 찾으며 움직이는 자생적 지배력"으로 변화했다.

주식과 증권거래소의 발명은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늘도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사회적 해악이 발생했다. 네덜란드는 1637년 '튤립 광풍'이 불었고 당시 튤립 구근 하나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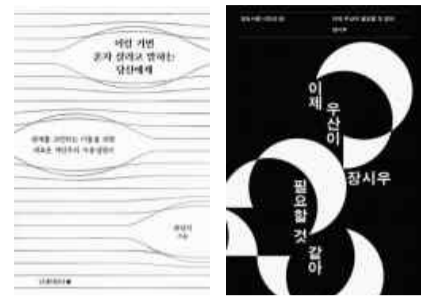
격이 고급 주택 몇 채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1900년대 일본 부동산 붐과는 일본 경제 쇠락을 이끌었고, 다른 나라의 네덜란드 튤립 광풍과 같은 집단적 투기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1700년대 영국 남해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거품은 런던 주식 시장 자체를 붕괴시켰다. 사회 각계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파산이 발생했다. 뉴턴도 남해 거품의 희생자였다. 당시 그는 "내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구나"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고래를 잡기 위해 작살과 빠른 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바다와 대기의 움직임, 고래 생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법도 마찬가지다. 먼저 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암호 화폐 등에 대한 투자 기술의 습득은 그다음의 문제"라는 말을 끊임없이 필요로 있다. <생각의 창·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책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한 개인주의자의 에세이. 저자 최민지는 가족·학교·직장 등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편견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누군가 나의 친구이자 동료이기 이전에, 나와 다른 의견과 가치를 지닌 개인이라는 사실을 존중할 때 성숙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남해의봄날·1만5000원
▲이제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2003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한 장시우 작가의 시집. '오래된 포옹처럼', '눈을 감으면 더 환해지는', '너를 묻기 위한 인연', '먼 꿈' 등 4부로 이뤄진 책은 60여편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세계를 꺼내놓는다. 무수한 틈을 채우는 빛과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시인은 소리에 감정을 녹여 '슬픔'에 도달한다.



▲은의 세계·1만원
▲베르베르 문명=언어학자 임기대가 북아프리카 토착 민족인 베르베르 부족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저자는 이곳에 로마-이슬람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고 설명하며 베르베르 부족을 주변이나 소수로 규정하는 서구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한길사·2만4000원>

▲은의 세계=위수정 작가의 첫 소설집.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이후 집필한 작품 8편을 한권으로 묶었다. 소설집에는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된 '은의 세계'와 현대문학상, 김유정문학상 후보작에 오른 '풍경과 사랑' 등의 작품들이 실렸다. 무엇하나 온전히 믿거나 이해할 수 없게끔 거리를 두는 작가의 소설은 오히려 그 거리감을 통해 읽는 이의 내밀한 곳을 건드린다. <문학동네·1만4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네가 오는 날=입양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며 느낀 슬픔,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감을 담은 그림책이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일기처럼 써 내려갔다. 아이가 쓸 방을 꾸미고 아이의 친구가 될 장난감을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 2018년 볼로냐 도서전 수상 작가인 레자 탈반드가 그림을 그렸다. <창비·1만3000원>

▲하루 10분, 세계 지도와 놀아요=세계 55개국 국가 모양을 너구리, 초승달, 금붕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전자 등 각종 동물이나 사물 모양으로 형상화한 세계 지도 그림책. 화가이자 작가인 아키야마 카제사부로는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와 그림을 통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아울러 퀴즈나 미로 찾기 코너도 마련했다. <세계질·1만3000원>

▲고래새우 말고 대왕고래=이정은 작가의 첫 동화책.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잡겠다는 꿈을 가진 조의 실수에도 할아버지는 그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보고 따뜻한 말을 전하며 용기를 준다. 꿈을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간 청년 조와 꿈을 만들기 위해 바다에 나온 할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특별한 노력과 선택, 진정한 꿈에 대해 말한다. <파란자전거·1만4000원>

▲고래새우 말고 대왕고래=이정은 작가의 첫 동화책.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잡겠다는 꿈을 가진 조의 실수에도 할아버지는 그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보고 따뜻한 말을 전하며 용기를 준다. 꿈을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간 청년 조와 꿈을 만들기 위해 바다에 나온 할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특별한 노력과 선택, 진정한 꿈에 대해 말한다. <파란자전거·1만4000원>

침묵 속 목소리...농아 사진작가의 경계 넘은 진정한 소통

목소리 순례

사이토 하루미치 지음 김영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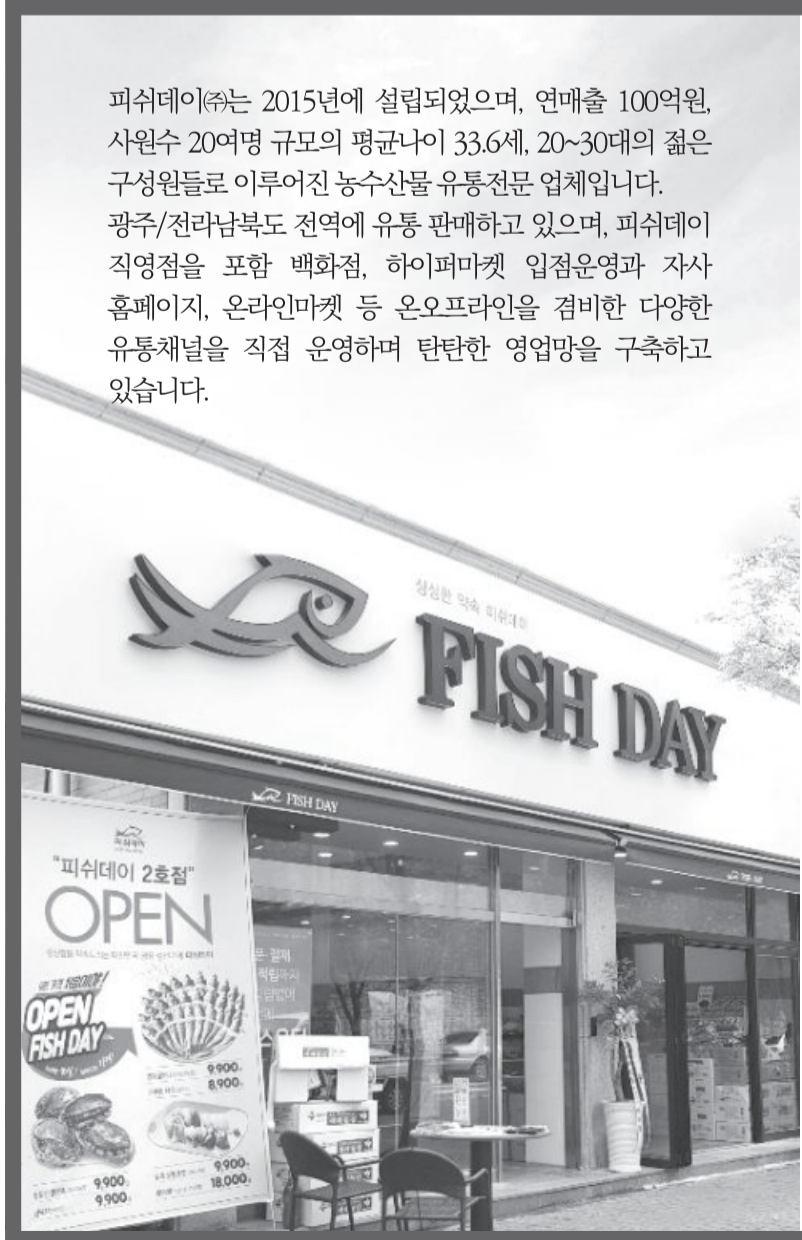


"나에게 사진을 찍는 것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다시 한번 순례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고 '스며들어 이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토 하루미치는 농인 사진작가다. 두 살 때 청각장애를 진단 받은 그는 일반학교에 다니며 '듣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지만, 삶은 녹록치 않았다. 그의 삶은 고등학교를 농학교로 진학하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농아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수어'와 만난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타인과 대화하게 된 후 전업사진가가 된다. 사이토 하루미치의 신작 '목소리 순례'는 다양한 존재

들을 만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에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청각장애를 극복하려 했던 어린 시절부터 장애를 인정하고 농인으로 살아가며 접한 다양한 언어와 감각에 대한 내밀한 고백을 전한다. 그가 가장 기쁜 순간은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서 '귀가 듣지 못하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볍게 뛰어넘는 '목소리'를 알게 될 때"였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결이 있었고, 사진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순례함으로써 맞이한 순간들이 담겼다.

아이와 함께 한 일상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냈던 일들을 담아 '서로 다른 기념일'을 이미 떠난 그는 이번 책에 사진 작업을 하면서 만난 '목소리'의 에피소드들을 담았다. 장애인 레슬러들, 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는 다운 증후군 당사자,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도 타인을 향한 격정과 기쁨을 전할 줄 아는 자폐성 장애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온몸의 감각으로 소통하려하는 이들의 삶을 살핀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감지한 그는 "대화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다름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저자 김영현은 이 책에 대해 "음성과 문자 너머에 있는 '광활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진취적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소설가 김연수는 "들 수 있다는 사실에 속아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지금 여기'의 세계는 얼마나 다채로운지 폭포수처럼 쉼 없이 흘러내리는 감각의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겠다"는 반전에서 타인을 향한 이해의 발판이 생긴다"고 추천사를 썼다. 일본어판과 달리 작가의 '목소리 순례'를 따라가는 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책에는 저자의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들을 함께 수록했다. <다다서재·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FISHDAY 피쉬데이
성실한 약속 피쉬데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